새벽종 제5호 11+12 2022

새마을운동중앙회

ISSUE NO.5
ISSN 2799-9343

RECYCLED PAPER
PRINTED WITH SOY INK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자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Magazine

새벽종

제5호 11+12 2022

공존하는 새마을

표지 이야기

새마을운동이 일궈나가는 새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새벽종〉.
이번 호의 표지는 평화로운 공동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새마을운동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4년 5월 창간한 월간 〈새마을〉, 1998년 3월 창간한 「새마을운동」신문에 이어 2022년 3월 새롭게 시작하는 격월간 종합교양문화잡지 〈새벽종〉으로 새마을정신과 시대정신을 이어갑니다.

Prologue

근면 · 자조 · 협동의 정신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다 같이 실천함으로써 국가발전을 견인해온 새마을운동.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담을 허물어 힘을 모은 것이
새마을운동이 우리 마을과 사회,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동력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차별 대신 존중으로, 갈등 대신 이해로,
외면 대신 관심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받는 이웃을 보살피며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듬는 것.
새마을운동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공존하는 새마을

Prologue

근면 · 자조 · 협동의 정신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다 같이 실천함으로써 국가발전을 견인해온 새마을운동.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담을 허물어 힘을 모은 것이
새마을운동이 우리 마을과 사회,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동력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차별 대신 존중으로, 갈등 대신 이해로,
외면 대신 관심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받는 이웃을 보살피며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듬는 것,
새마을운동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CONTENTS

제5호 11+12 2022

매거진 〈새벽종〉을 휴대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 Webzine

① 새마을

06
Focus I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
–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12
Focus II
새마을운동의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다
– 2022년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14
펼침
갈등 대신 평화로, 외면 대신 도움으로

18
어울림
새마을이 짓는 따뜣한 사회로 가는 길

20
누림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명품 울주 여행
– 울산 울주 여행

24
울림
'나'에서 '우리'로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
– 제26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곽대훈

② 나눔

28
이슈 탐독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협업, 협동

32
새마을 사람들 I
MZ세대와 한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새마을의 미래
–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

36
새마을 사람들 II
삶의 질은 위로, 환경 부담은 아래로!
새마을정신으로 행복의 균형을 맞춘다
–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

40
친절한 건강 가이드
허리통증, 생활습관으로 예방하자

44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가치소비 시대, 환영받는 '에코 프렌들리' 제품들

③ 소식

46
중앙회 소식

48
시·도 소식

50
현장은 지금

58
새마을 통통통

발행일
2022년 11월 10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곽대훈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3~5
F. 031-620-2379

편집 ·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광고 · 구독 · 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운동은 유엔개발정상회의(UNDP, 2015), OECD 정책센터(2015)에서 21세기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기록물이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 국가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다시 변화시키고 세계로 그 가치를 전파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큰 자부심과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미래로 이어나갈 새마을지도자들. 그들의 뜨거운 마음이 모인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write / photo. 홍보실

1

2

3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수많은 국가적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 온 새마을운동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금 발휘할 때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10월 13일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국내외 새마을지도자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를 주제로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중앙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탄소중립 문화 조성 ·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 공동체의식 회복 및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새마을운동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 행사로 개최됐으며, 새마을지도자들은 서로의 화합을 도모하고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2023년 새마을운동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모색했다.

새마을운동은 탄소중립을 위한 '생명운동', 남북관계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평화운동',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공동체운동',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지구촌공동체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MZ세대의 동참을 위한 대학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새마을동아리 결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영상 상영(2022 보람의 현장),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대회사, 유공자 포상, 대통령 축사, 비전다짐 퍼포먼스, 새마을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전문수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등 21명이 시도를 대표하여 새마을운동 포상을 받았다.

아울러, 진행된 비전다짐 퍼포먼스는 도약의 빛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100년의 밝은 미래의 길을 비추고, 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즐기는 융 · 복합 아트 퍼포먼스를 형상화해 국가 브랜드와 새마을운동의 미래적 가치를 표출했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수많은 국가적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 온 새마을운동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금 발휘할 때이다"라며 "새마을지도자의 뜨거운 열정으로 양극화된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체 정신을 국가 발전 동력으로 삼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시절 경제위기를 극복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마을회원이 하나로 단합해 국민통합과 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정신 운동으로써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148개국 6만 3천여 명의 해외 새마을지도자 초청연수를 통해 새마을운동 노하우를 전수했다. 올해 45개국 85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고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 오세아니아 등 10개국 42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마을정신을 공유한 46개국을 하나로 연결해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 ·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을 2016년 창립했다.

1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과 중앙단체장이 입장식에서 대회기를 흔들며 개회를 알리는 모습

2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수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수여하는 모습

3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 두 번째),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사진 오른쪽 세 번째), 중앙회원단체장들이 새마을노래를 부르는 모습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영광의 얼굴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새마을훈장 30명을 비롯해 새마을포장 30명, 대통령표창 73명, 국무총리표창 92명, 행정안전부장관표창 390명, 새마을운동중앙회장표창 605명 등 총 1,220명의 새마을가족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꾸준히 펼친 21명의 새마을지도자에게 대통령이 친수하고 이외 수상자는 시도별 지도자대회에서 전수할 계획이다. 영예로운 새마을훈장을 받은 30인의 수상자를 소개한다.

write / photo. 홍보실

[새마을훈장 자조장] 2명

직장 · 공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전문수

직장노사화합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와 탄소중립 운동 전개, 신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직장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했다.

새마을지도자 서울특별시협의회 회장 우종호

에너지 절약 캠페인, 아간방범활동, 재해복구활동, 농촌일손돕기, 코로나19 방역단 결성,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 등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큰 힘을 쏟았다.

[새마을훈장 협동장] 6명

강원도새마을회 회장 박형배

탄소중립실천, 이웃사랑 나눔운동, 자연재해 피해복구사업,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활동,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 조직 실천역량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마포구지회 회장 박정환

장바구니 나눔, 아이스팩 재활용, 하천정화 활동 등 탄소중립 실천과 농촌일손돕기, 저소득가정 지원 등을 전개해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새마을지도자 부산광역시수영구협의회 회장 임병석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이기와 새마을줍깅을 통해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뚝딱이 봉사단과 방역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새마을지도자 강원도철원군협의회 회장 조경하

재난재해구호, 지구촌 나눔운동, 아이스팩 재사용, 나무심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적극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했다.

[새마을훈장 근면장] 9명

서울특별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조동희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필품 꾸러미와 응원 메시지 전달, 탄소중립 나무심기 및 자원재활용 활동 등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실현에 힘썼다.

전라남도진도군 새마을부녀회 회장 추영금

세월호 침몰사고 시 급식차량 봉사, 소외계층 돕기 성금 전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식 나눔, 홀몸 어르신 돌봄, 사랑의 김장 나눔 등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섰다.

충청남도서산시새마을회 회장 이관석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감염병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구촌공동체운동 등을 펼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

새마을지도자 경상북도의성군협의회 회장 양희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이웃돕기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위상을 높였다.

새마을지도자 경기도성남시협의회 회장 송봉식

장수만세 효 나들이, 도농교류, 국토대청결, 방역활동, 이웃사랑실천 및 거리질서계도 활동 등을 통해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과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크게 기여했다.

새마을지도자 전라북도임실군협의회 회장 신유섭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재활용품수집을 실시해 지역 맞춤 생명운동 실천에 모범이 되었으며, 이웃사랑 나눔사업을 적극 전개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섰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배말자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무료 점심대접 및 며느리봉사대활동 등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지역 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서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명화

자원순환시민교육 강연, 재활용품 의류 모으기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소독 면마스크 제작, 복지시설 나눔실천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섰다.

충청남도논산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최연희

홀몸 어르신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자원재활용 숨은 자원 모으기, 코로나19 확산방지, 휴경지 경작 등의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새마을훈장 노력장] 13명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감사 신삼유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생명운동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운동에 앞장서 기업의 사회공헌, 공동체운동, 탄소중립실천에 모범이 되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충청남도지부 회장 유기복

알뜰도서시장운영, 피서지문고운영, 독서경진대회개최, 독서동아리 도서지원, 저개발국가 도서보내기 등을 전개해 독서문화 확산과 국민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새마을운동 경기도광명시지회 회장 장용성

이웃사랑 나눔실천, 지역사회 경제발전 전개,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가꾸기 사업과 에너지절약실천으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크게 기여했다.

새마을운동 전라북도부안군지회 회장 권명식

농촌 흙 살리기운동, 케나프 식재, 생명운동, 사랑의 월동김치 나눔, 모항해수욕장 환경정화 활동, 어르신 효 잔치 등을 전개해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힘썼다.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하동군협의회 회장 한기식

탄소중립실천으로 생명운동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이웃돌봄을 통한 공동체운동 정착에 앞장섰으며 코로나19 예방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했다.

새마을지도자 대구광역시달성군협의회 회장 서창석

코로나19 방역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맑고 깨끗한 강하천 가꾸기, 나무심기 등 생명운동을 전개해 쾌적한 지구환경 만들기에 적극 앞장섰다.

새마을지도자 서울특별시용산구협의회 회장 손성열

코로나19 방역활동,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나무심기, 농촌일손돕기, 국제협력사업과 함께 소외 이웃에 나눔을 실천해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섰다.

새마을지도자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동협의회 강동규

환경정화활동, 코로나19 예방활동, 탄소중립실천,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 사랑의 집수리활동을 펼치고, 지역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강원도정선군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학순

코로나19 예방활동, 재난재해복구, 주거환경개선, 나눔문화 확산, 재활용품수집,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축제지원 등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울산광역시중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영조

다문화가정 행복한 동행, 환경정화활동, 나라 사랑 운동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전개했다.

대구광역시중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박명숙

이웃사랑 반찬 김장나눔, 농촌봉사, 국제협력봉사, 코로나19 방역활동, 집 고쳐주기, 급식봉사, 수능급수봉사 등을 추진해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도파주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명자

홀몸 어르신 말벗 해드리기, 밑반찬 나눔,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 등을 전개해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충청북도증평군 새마을부녀회 회장 최연옥

새마을 향토음식점을 운영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과 홀몸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소비절약운동, 사랑의 집고쳐주기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켰다.

서울특별시중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순자

새마을조직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 돌봄 사업,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와 녹색나눔장터, 꽃길 가꾸기 등을 전개해 새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했다.

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남도사천시지부 회장 조용백

피서지이동문고 운영, 알뜰도서 교환시장, 독서경진대회 개최,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재활용경진대회 등 새마을문고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새마을운동의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다

2022년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1

2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148개국 6만 3천여 명의 해외 새마을지도자 초청연수를 통해 새마을운동 노하우를 전수했다. 올해 45개국 85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고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 오세아니아 등 10개국 42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마을정신을 공유한 46개국을 하나로 연결해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 ·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을 2016년 창립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의 세계화가 꾸준하고 발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각국의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write / photo. 홍보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0월 12일 서울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에서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를 주제로 '2022년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Global Saemaul Leadership Forum 2022)'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마을운동 확산에 앞장서 온 해외 새마을지도자와 관계자를 격려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국가별 지역개발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의 행사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열렸으며,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니아 세루이라뚜 피지 농촌해양개발 재난관리부 장관, 저스틴 츠카첸코 파푸아뉴기니 외교부 장관, 빅토리아 부싱게 루소케 우간다 지방정부부 국무장관, 통팟 봉마니 라오스 농림부 차관, 지구촌 46개국의 고위급 공무원,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 대표, 새마을협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
SGL 대표들이 새마을기와
각국의 국기를 들고 입장한 모습

2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치러졌다.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참가국가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시청,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대회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환영사, 이니아 세루이라뚜 주한 피지 장관 축사, 빅토리아 부싱게 루소케 주한 우간다 장관 축사, 동티모르 새마을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홀로그램 퍼포먼스, 새마을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국가 및 마을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종합세미나와 국가별 지역개발정책 세미나도 함께 열렸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UN, OECD 등 국제기구가 인정한,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사례를 세계와 공유하여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지구촌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함께 잘사는 지구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립 의지를 심어준 국민정신운동으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새마을운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32국 50명을 대상으로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 · 전문가 특별과정을 운영했다. 연수생들은 4박 5일간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핵심가치와 본질을 이해하고 국가별 새마을운동 추진사례를 통해 새마을운동 현지화 방안을 마련했다.

갈등 대신 평화로,
외면 대신 도움으로

우리 사회를 근대화시키고 국민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끈 새마을운동.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가치는 경제적 효과로만 바라볼 수 없다. 국민들은 '잘 살아보자'는
목표를 위해 한 뜻이 되었고 내 일 네 일 가리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새마을운동은 이렇듯 사회통합의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이 시대에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관계로만 대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상생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모습을 살펴본다.

write. 홍보실

**새마을운동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하고, 도 · 농간 교류 촉진 및 생활안전망 활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다문화 관련사업
2,513회 · 10,897명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462회 · 18,731명
(판매액 1,826,629천원)

도농교류활동
152회 · 4,021명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운영
2,450개소

농촌일손돕기
1,680회 · 25,132명

방범, 스쿨존, 안전지킴이 봉사
4,827회 · 31,062명

태극기달기 운동
2,297회 · 24,064명

행복한 일터 만들기
141회 · 848명

새마을군집기 관리
1,334개소 · 13,737명
(군집기 수 19,723개)

(2022. 2월 총회자료 기준)

새마을운동은 이웃과 함께 '좋은마을'을 만들어가며,
신뢰 · 배려 · 나눔 · 협동의 사회적 자본을 키워나갑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역활동

283,775개소
553,364명

마스크 제작

1,245,273장
42,084명

성금 · 성품기부

12,803,434천원
35,738명

응원메시지 전달

68회
11,245명

응원현수막 달기

859개소

헌혈 캠페인

56,792명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214회
6,515명

어려운 농가 농산물 팔아주기

2,058,706천원
2,023명

기타 캠페인

133회
1,298명

(2022.6.30.현재, 21년부터 누계)

강원 · 경북
산불피해 지원활동

구호활동

6개 시도 · 시군구 545명, 23개소

급식 · 급수지원, 대피어르신 귀가지원,
구호물자관리 및 배분

성금

113,782천원

(중앙회 · 중앙노조 · 17개 시도 45,572천원
41개 시군구 68,210천원)

구호품

28개 시도 · 시군구 3,695상자
(환가액 23,880천원)

쌀10kg 35포대, 찐빵 · 떡, 삼계탕, 라면,
생수, 컵라면, 미역, 김

(2022.3.18.현재)

중부지역 집중호우
복구활동

복구활동

145개소, 2,755명

침수주택 복구활동, 방역,
식수보급, 도로 응급복구,
침수장 정리, 피해 농작물 조기수확

성금

10,680천원

(36개 시도 · 시군구 10,680천원)

구호품

2개 시군구 2,600천원

고무장갑, 마대 등 9종 1,055개
수건 200장

(2022.8.29.현재)

태풍 힌남노
복구활동

복구활동

52개소, 2,377명

성금

700천원

(1개 시군구)

(2022.9.16.현재)

새마을이 짓는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신 다양성을 무시하는 쪽을 택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과 무관심이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참여와 소통, 신뢰와 배려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힘쓰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 새마을운동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write. 성혜경　illust. 벼리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귀농 · 귀촌인 조기정착 지원 및 도 · 농간 교류촉진(농산물직거래장터 등)을 위해 읍면동별 지원단을 구성 · 운영하는 등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다문화가정(이주노동자, 새터민) 나눔 봉사단 운영, 아파트 공동문화 캠페인, 우리마을 분쟁 해결센터 운영, 3대가 함께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 가족(주민)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목표가 목표인 만큼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지자체, 관계기관(새터민센터, 이주민센터, 다문화지원센터)과 연대 · 협력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웃분쟁 예방을 위한 캠페인(층간소음, 생활누수, 애완견 소음, 흡연, 주차, 쓰레기 투기 등)을 전개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 지자체, 법률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구성된 '우리마을 분쟁해결센터'를 제안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유형(도시/농어촌)과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밖에 도 · 농간 교류및 귀농 · 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읍면동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웃의 어려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이들도 바로 새마을지도자들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회는 방역활동, 마스크 제작 및 양보 운동, 성금 및 성품 전달, 손소독제 제작, 착한 임대료운동, 지역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연대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섰다.

지난 3월 경북 울진, 강원 강릉 · 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 사태 때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호물자와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와 재난상황실 등에 식사를 제공하고 구호물자를 관리 및 배분하며 긴급복구지원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 긴급 복구활동을 펼쳤다. 새마을지도자들은 피해가 발생한 다세대주택 등에서 토사로 뒤덮인 가재도구를 물로 닦아내며 무더위 속에서도 피해복구에 열중했다.

이처럼 새마을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함께 해왔다.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전방위에서 앞장서고 있다. 1990년대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의 기적을 이끌었으며, 특히 전국 새마을부녀회는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으로 무려 370만 돈의 금을 모았다. 2017년 12월 태안기름유출 사고 때는 절망으로 얼룩진 지역민과 어민들의 마음을 닦아주었고, '세월호사고' 때는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며 슬픔을 함께 나눴다. 2019년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앞장서는 등 큰 재난에는 항상 새마을지도자들 앞장섰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새마을지도자들. 이들의 땀이 따뜻한 사회를 이뤄가는 희망이 아닐까.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명품 울주 여행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가 어디쯤인지 지도를 펼쳐 서울에서부터 그 거리를 가늠해 보았다. 동해가 끝나가는 지점 즈음에 적힌 울주라는 두 글자를 보자마자 상당한 거리감에 놀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 훅 설렘이 일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호기심이 샘솟았다고 할까? 무엇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잠정 등재된 반구대 암각화를 두 눈으로 꼭 보고 와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한 여행이리라. 그러나 여행지에 도착해서야 알았다.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이상, 울주가 얼마나 근사한 곳인지.

write. 김진희　photo. 김병구

한반도의 아침이 시작되는 곳

울산 울주는 산촌과 어촌 그리고 평야가 혼재되어있는 땅이다. 이러한 이점 덕분에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반농반어' 혹은 농업을 전업으로 생활해오다 70년대 후반에 온산 일대에 지방산업단지와 국가공단이 들어서면서 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울주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선사시대 유적을 잘 보존하며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명품 관광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울주에 도착해 바삐 찾아간 첫 번째 여행지는 간절곶이었다.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은 먼 바다에서 바라보면 뾰족하고 긴 간짓대(대나무장대)처럼 보여 이름 붙여진 곳인데,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하다. 영일만의 호미곶보다 1분, 강릉의 정동진보다 5분 먼저 해돋이가 시작된다고. 도착했을 땐 이미 일출 시간이 훨씬 지난 뒤라 무척 아쉬웠지만, 초록 잔디밭 너머 짙푸르게 펼쳐진 바다의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내 마음은 넉넉해졌다. 간절곶은 여느 해안가와 달리 탁 트인 잔디밭이 있다는 것이 독특했다. 잘 관리된 잔디밭에 가만히 앉아 고개를 돌려보면 정면으로는 너른 바다가, 옆으로는 앙증맞은 풍차가, 뒤로는 바닷길을 밝혀주는 하얀 기둥의 등대가 보인다. 1920년 3월에 설치된 이래 단 한 번도 불이 꺼져본 적 없다는 등대는 2001년 재단장을 한 덕에 더 근사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해안가로 내려가 나무데크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전망대가 나타났다. 그곳에 설치된 무료 망원경을 통해 온산공단과 슬도, 무릉산, 대왕암을 관찰할 수 있다. 망원경 없이도 멀리 보이는 방파제와 풍차가 어우러진 전망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으며 잠시 숨을 돌렸다. 전망대를 지나 만난 것은 간절곶의 명물이라는 소망우체통이었다. '간절곶'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담아 조성한 우체통으로, 간절곶 휴게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엽서를 작성해 넣으면 실제로 배달이 된다고 한다.

자연이 빚어낸, 아름답고 차분한 보석의 세계

신라시대 왕족과 귀족이 사용한 장신구, 러시아 예카테리나 여왕의 장신구, 로마 교황청 종교 행사에 사용하는 컵에 공통으로 쓰이는 보석. 바로 자수정이다. 예로부터 몸에 지니면 지혜로워지고 사업에 성공하며 악운도 물리친다고 해 귀한 보석으로 여겨지는 자수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굴되는 곳이 울주군 언양읍 일대라고 한다. 무려 신라시대부터 자수정 채굴이 이어져

1

2

3

왔다고 하니 그 역사가 가히 엄청난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많은 자수정이 빠져나갔고, 1960년대부터 다시 우리 손으로 자수정을 채굴하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대표적인 자수정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양읍 일대에는 100여개의 자수정 광산이 있는데, 그 중 한 폐광을 관광지로 개발한 것이 자수정 동굴나라이다. 동굴테마파크로 개발해 입구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나와 여름에는 피서지로도 제격일 듯 했다.

길이 2.5km, 500평 규모의 동굴 안에는 자수정 원석이 자라는 둥그런 돌무더기가 있는 정동, 채굴 당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재현한 모형 등 테마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가 풍부했다. 국내에 여러 동굴들이 있지만, 자수정 동굴나라가 더 특별한 이유는 지하 동굴 내에 호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보트로 수로를 다니면서 동굴의 기암괴석, 태고적 자연 그대로의 신비로운 모습과 아름다운 자수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보물을 찾아 여행하는 듯한 기분에 동심으로 돌아가 탐험을 즐겼다.

듣듣히 역사를 이어온 읍성

자수정 동굴나라에서 나와 향한 곳은 울주의 대표 사적인 언양읍성이었다. 언양읍성은 삼국시대에 지어진 석축 성곽이다. 당시 지방 관아와 주민들의 주거지를 보호하며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함께했던 언양읍성은 산을 끼고 있는 다른 형태의 읍성과는 달리 평지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과거 언양읍성의 북문이던 자리에 위치한 안내소에서부터 한적한 마을과 아직 초록이 더러 남아있는 들판을 보며 길을 걷다보니 남문인 영화루를 만날 수 있었다. 현재 언양읍성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복원중이지만, 영화루 만큼은 2013년 복구를 마친 상태였다. 영화루는 6m에 달하는 높은 옹벽 위에 올린 멋스러운 누각이었다. 누각에 올라 언양읍 일대를 둘러보고 다시 시선을 끌어와 성곽의 모습을 살폈다. 성곽은 위에서 바라보니 사각형 모양이었다. 토성과 석성으로 축조되어있는데, 토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조선시대 석성은 1500년에 현감 이담룡이 돌로 개축하여 확장한 것으로 본다. 현존하는 석성은 둥글게 자리 잡은 성의 기초 위에 축조되어 있는데, 거대한 바위를 굴려 기초를 세운 다음, 큰 돌을 얹고, 큰 돌 사이 무수한 잔돌을 끼워 박는 방법을 사용해 무척 견고하게 지었다.

오랜 세월을 견뎌냈고 앞으로도 그러 할 성벽에 가만히 손을 대니 대견하고도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선사인들의 찬란한 솜씨

울주에서의 마지막 여행지는 고대하고 있던 암각화를 만날 수 있는 태화강 지류의 대곡천 근처였다.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를 표현한 암각화로 국보 제285로 지정되어있으며 울주 천전리 각석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찾았다. 먼저 울산 암각화 박물관에 도착해 관람을 마친 후에 숲속 산책로를 통해 반구대 암각화로 향했다. 꽤 먼 거리였지만 가을색이 덧 입혀진 주변 풍경에 기분 좋게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마침내 암각화가 그려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절벽이 눈앞에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볕이 들지 않아 육안으로 암각화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신 일반 망원경과 디지털 망원경을 통해 암각화를 볼 수 있었다. 다양한 동물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했다. 신석기시대 후기에서 청동기시대 초기에 제작됐을 것이라 추정되는 반구대 암각화에는 다양한 고래들의 모습이 새겨 있었다. 그 외의 바다, 육지 동물과 선사시대 사냥과 해양 어로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동물 그림은 생태적 특징을 섬세하게 표현해 최소 7종의 고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반구대 주변으로 천전리 각석과 천전리 공룡 발자국 화석도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았다.

울산 도심과는 또 다른 자연과 역사, 그만의 분위기를 가진 곳. 울주의 매력을 알게 된 하루였다. 여전히 볼 것이 많은데 아쉽게도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4월에서 9월 중순까지는 암각화가 정말 잘 보인다고 하니, 그 핑계로 그때 다시 한 번 찾아와야지 싶었다.

1
1920년 3월에 설치된 간절곶 등대는 2001년 재단장을 한 덕에 더 근사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2
자수정 동굴나라는 폐광된 자수정 광산을 관광지로 개발한 동굴테마파크다.

3
울주의 대표적인 사적인 언양읍성은 삼국시대에 지어진 석축 성곽이다.

4
울주군새마을회 회장단(사진 왼쪽부터 김학준 직장 · 공장협의회장, 문군자 문고회장, 송병열 울주군지회장, 김옥희 부녀회장, 최영식 협의회장)

울산 울주군새마을회

4

Q 울산 울주군새마을회를 소개해주세요.

A 울주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울산 울주군새마을회입니다. 단합력과 탄탄한 조직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사업, 노인 · 장애인 ·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한 복지 사업 등 공익적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돕기에 자원재활용품 보내 세계로 나아가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Q 울주군새마을회 활동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단체가 협동하여 매년 나라사랑 태극기를 각 가정에 나누어주고, 거리 캠페인을 합니다. 또한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홀몸 어르신 밑반찬 전달을 수시로 하며, 독특하게 여름철 사랑의 열무김치나누기 사업을 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회생 불능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한 가구를 방문해 청소하고 정리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복리후생에 힘씁니다. 울주군부녀회는 각 지역에 다문화 멘토를 맺어 다문화가정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운동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책과 함께하는 새마을회가 되자는 포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새마을회는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지역주민들을 챙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울주군새마을회는 도움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새마을운동을 많은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어디든 달려가는 국민운동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운동, 탄소중립, 3R재활용, 헌옷모으기경진대회, 산불지역 나무심기 등 환경보전 운동, 사랑의 열무김치나누기,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사랑의 집고치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유관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로 공익적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 이웃을 위하고, 지역새마을운동을 비롯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동체운동실천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에서 ‘우리’로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

제26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곽대훈

새마을운동의 산증인, 새로운 리더가 되다

52년이라는 긴 역사를 지닌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수장이 된 곽대훈 회장. 연륜이 묻어나는 지긋한 눈빛과 푸근한 미소에서 그가 새마을운동의 산증인임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으로 마을이 변하는 걸 생생히 목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직에 몸담았던 1990년대 초반에 대구시 새마을과가 국민운동지원과로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당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을 거쳐 또다시 새마을운동 관련 주무국장을 맡았고 대구 서구와 달서구청 부구청장으로 5년, 달서구청장이었던 10년까지 포함하면 넉넉하게 20여 년은 새마을운동과 인연을 맺어왔네요.”

새마을운동의 수혜자에서 실무자로, 나아가 이제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니 그야말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다. 그런 그에게 새마을운동은 흘러간 과거의 유물이 아닌 패기 넘치던 청춘의 때엔 기필코 완수해야 했던 사명이었고 관록으로 무장한 지금은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숭고한 비전이자 목표가 되었다.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 보자’는 꿈은 이미 우리가 새마을운동으로 이뤘잖아요. 이제 새마을운동은 ‘제대로 살기 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근로자는 근로자답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면 좋은 이웃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라는 곽대훈 회장. 양극화와 개인주의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각박해진 요즘이기에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새마을 가족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근면 · 자조 · 협동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온 것은 물론이고 돌봄과 나눔으로 우리 사회를 밝히는 데 앞장서 온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새로운 수장이 선출됐다.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만났다.

새마을운동!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변모하다

1970년 시작 당시엔 관 주도로 진행됐으나, 1980년부터 민간 주도로 전환되어 봉사에 앞장서 온 새마을운동. 지난 52년 동안 수많은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은 지역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보살펴 왔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100만 포기 사랑의 김장 및 생필품 나누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각종 나눔, 돌봄 활동으로 봉사 활동 내실화를 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취약계층과 이재민 지원, 방역, 마스크 제작 등 전염병 예방 활동 전개와 재난재해 구호활동에도 힘써왔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엔 180만에 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회원들이 계세요."

회원 수가 무려 180만이라니 놀라운 규모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 국민운동 단체이자 봉사 단체인데, 최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여러 중요한 사회 이슈 해결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새마을회원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1회용품 사용 최소화하기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보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별로 산림청, 환경부, 환경공단 같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나무 심기, 플라스틱 및 아이스팩 수거 활동 등 친환경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에 새 옷을 입혀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그에 발맞춰 조직을 젊게 만들기 위해, 여러 대학에 새마을동아리를 결성해서 새마을운동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면 좋은 이웃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6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58개 대학에 새마을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각 대학의 새마을동아리 학생들은 지역 특색에 맞춰 농촌 일손 돕기, 소외계층 돌봄, 환경보전운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어서도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면 새마을운동 또한 새로워지고 젊어지는 건 당연지사.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인 만큼 대학새마을동아리 학생들과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연계해 청년들이 지구촌새마을운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꼭 만들겠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맞춰 활동 방향이 달라진다 해도, 기아와 빈곤 탈출이라는 새마을운동의 인류 보편의 가치는 현재도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겐 기필코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에 찬사를 보내고, 도입을 희망하는 이유는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필요한 것을 거저 주는 원조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국제사회가 새마을운동을 인정하고 있어요. 2013년에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2015년 9월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이 빈곤 타파 및 기아종식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고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게다가 새마을운동이 도입되어 그 효과를 체감한 많은 나라들이 시범마을 추가 지정을 요청해 오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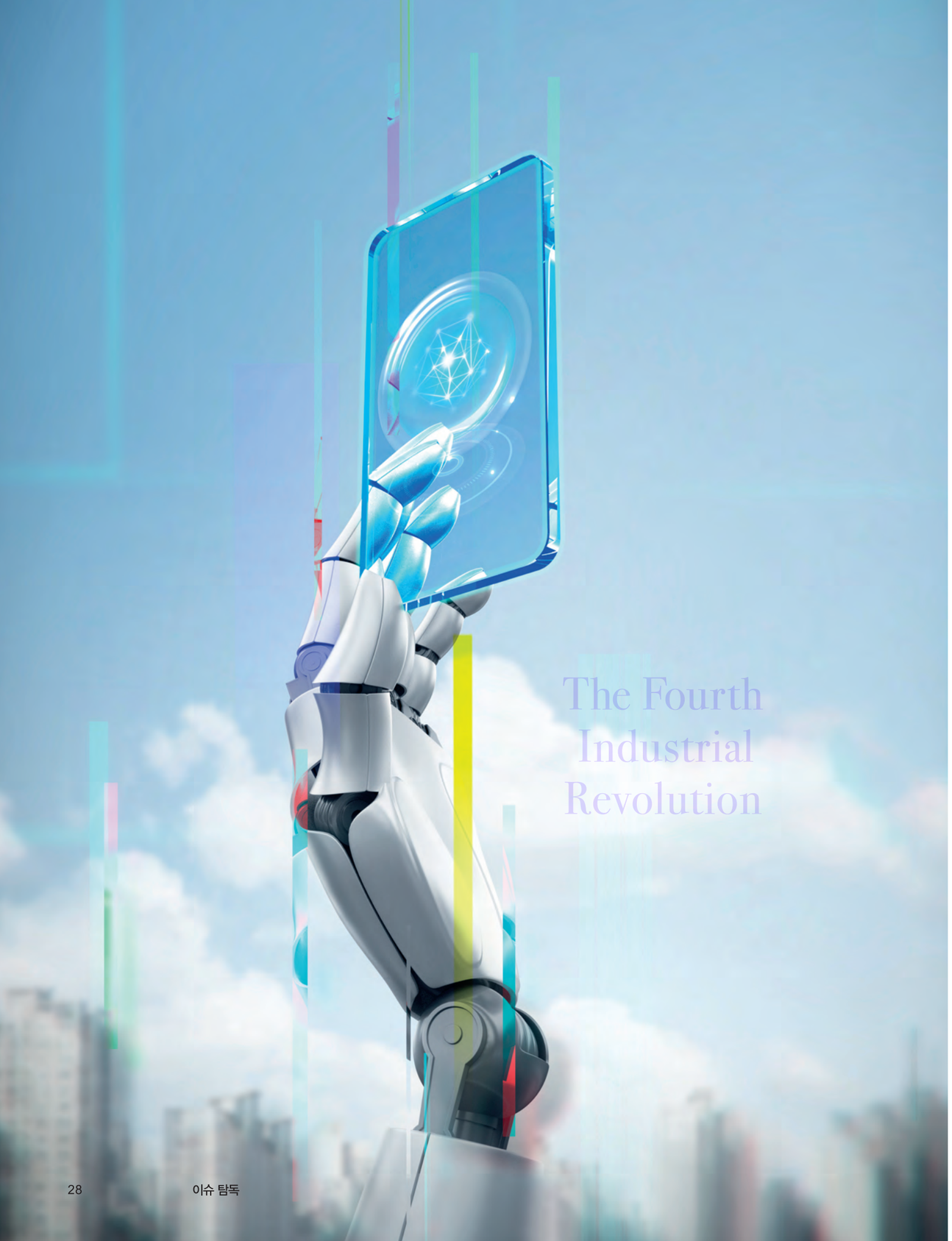
1973년부터 2022년 5월까지 148개국 63,573명을 초청해 새마을지도자로 양성한 새마을운동중앙회. 연수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간 이들은 자국의 빈곤 퇴치에 앞장서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라오스, 우간다 등 20개국에 92개의 시범마을이 조성되었고 마을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소득이 증대되는 쾌거를 이뤄내고 있다.

"올해 중앙회는 10개국 42개 마을을 '새마을시범마을'로 조성했습니다. 아시아 4개국, 아프리카 2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중남미 2개국 총 10개국인데요. 2016년에 세계 46개국의 새마을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가 창립됐는데 새롭게 조성된 마을들도 함께 연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계속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함께 가는 길은 때론 더디 간다 해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 어려움은 나누고 기쁨은 배가 되도록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사는 세상이 더 충만해질 터. 전국 각지 새마을회원들과 새로운 내일을 만들고자 첫 발걸음을 뗀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경제, 안보, 기후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요즘인데요. 지금이야말로 새마을운동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대가 없이 낮은 곳에서 일해 온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공동체 정신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또 다른 발전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그루 나무는 태풍에 속수무책이지만 여러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룬다면 거센 비바람도 굳건히 견딜 수 있는 법. 새마을운동의 실천적 정신인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들불처럼 일어나 더욱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협업, 협동

초연결성(Hyper-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주변의 모든 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능화된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의 주요기술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센서를 사물에 부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 상호간에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게 된다.

write. 김용훈 시사평론가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GE기업은 2011년부터 산업인터넷을 개발하고 있고 구글은 2001년 인공지능기업을 인수해 연평균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68만 ㎞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국정부는 2011년 이후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MP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로봇공학기술을 R&D투자 대상기술로 정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이후 기업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빅데이터 분야의 발전을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증거기반 정책법과 연방데이터 전략 2020으로 데이터 자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13년 정부가 세계 최첨단 IT국가를 선언하여 IT를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2015년에는 로봇을 새로운 전략으로 추가하여 저출산 고령화로 부족해진 인력과 사회문제를 풀어보고자 하였다.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으로 정부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기술(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제조시스템 구축을 기획했다. 2016년부터는 국가혁신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을 발표하며 기술과 산업구조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1

1
사물인터넷은 센서를 사물에 부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 상호간에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 Industry 4.0을 응용하여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 강국에 진입하고자 5대 중점 프로젝트와 10대 육성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5대 중점 프로젝트는 제조업 전체의 혁신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10대 육성사업은 차세대 주도산업의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유망산업의 정책지원이다. '인터넷 플러스'는 4대 목표와 7대 계획으로 인터넷과 ICT기술을 활용하여 경제 및 사회발전, IoT 기초인프라, 인터넷 융합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서 적극적인 계획과 지원으로 인프라의 혁신 및 인재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은 2016년 3월 이세돌 바둑기사와 알파고(AlphaGo)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과의 대결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의 활동은 2017년 10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로 시작된다. 같은 해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12개 지능화 혁신프로젝트와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2021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기반을 구축했으며 사물인터넷(IoT),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의 육성,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에 대한 계획이다.

주요 국가들은 차세대 경쟁기술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선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크지 않다. 산업전반의 기술은 물론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산업혁명이라는 차원에서 각 분야의 지원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변화와 우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초연결성으로 주변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분석되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산출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으로 처리한다. 사람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는 인공지능은 냉장고에 탑재되어 온도를 조정하고 다 떨어진 식료품을 확인하고 알아서 주문한다. 청소기에 탑재되어 장애물도 피하고, 스피커에 탑재되어 날씨도 알려주고 말동무도 되어 준다. 이러한 소통으로 매 순간 사람과 사물 네트워크는 수많은 빅데이터를 생산한다. 기기가 지능화되고 편리화 되는 한편 항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환경에서는 어디서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정보의 이용의 차별로 양극화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주요기술의 융합과 복합으로 산업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지능을 탑재한 기기들이 제조업에 투입되어 기계화될 것이므로, 생산과 품질분야의 단순 기능을 반복하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첨단의 기기들이 산업과 생활 속에 파고 들어 스파이가 될 수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세계는 사이버 세계가 연결되어 CPS(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생태계가 일반화 될 것이다. CPS는 물리적 공간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의 기반으로 디지털화되어 네트워크로 연결,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이다. 메타버스처럼 현실의 체계가 가상에서 움직이고 가상의 체계가 현실에서 작동되어 스마트화를 가속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세계와 물리세계를 연결한 세계에서는 현실에서 당면하는 것보다 복잡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야 해결될 것이다.

2

2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행하는 무인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

3

3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CPS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생태계가 일반화 될 전망이다.

협업의 필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가진 생산방식을 바꾸게 하고 노동의 형태와 조직 형태도 변화시킨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소비자를 발견하고 생산의 방법 및 규모도 결정한다. 4차 산업혁명기술은 시스템과 전체 통합으로 가치를 더하는데 이를 위해서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모든 제반 요소를 연결하여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찾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공유와 협력은 목적을 위한 방법의 하나가 된다. 기술의 변화는 다른 제조사가 동일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제조장비가 표준화되고 있으니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업으로 독자적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의 생산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해 마스크 부족사태를 겪을 때 삼성그룹은 마스크제조업체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직접 금형제작에 참여하여 하루 4만개의 마스크생산량을 10만개로 확대했다. 마스크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기술과 역량이었으나 외부와의 협업으로 업체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었다. 협업은 목적을 같이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관점들이 모여 보다 큰 시야에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고 각자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듯 기업들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협업의 조합을 연구해야 한다.

개인화 문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이다. 초개인화는 실시간으로 소비자를 파악하여 고객의 필요를 예측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넷플릭스나 구글, 스타벅스 등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장르를 세분화하고 고객 선호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소비되는 콘텐츠의 70~80%의 수준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글은 AI 대화형 서비스로,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 및 지능형 메뉴추천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고 있다.

개인의 필요를 예측하여 소비를 호소할 수 있는 체계는 기업과 정부의 서비스체계도 바꿀 것이며 광고 및 홍보계에도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는 물론 개인의 필요까지 분석되는 시스템은 이것의 과도한 활용이나 범죄의 악용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4차 산업혁명기술은 해당 기술 자체와 산업과 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든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외치는 한쪽으로 기존의 방식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존의 방식을 싹 뜯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한다. 움직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이다. 물론 양적성장이라는 오랜 틀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계에 달한 성장에 무궁한 가능성을 내보이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외면할 수는 없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에서는 데이터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라는 표현을 한다. 모든 나라가 소비하지만 생산은 일부 지역에 치우치듯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보는 경쟁력의 원천이다.

MZ세대와 한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새마을의 미래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초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풀뿌리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 자라나는 MZ세대들은 그 영향력을 피부에 와 닿게 느껴보지 못했고, 때문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MZ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보았다. 그곳에서는 세대 차이나 아무런 갈등을 느낄 수 없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젊은 덕분일 게다. 어린 학생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생명, 평화, 공동체, 지구촌운동을 하고 있는 회장단.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새마을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write. 신지선　photo. 김병구

MZ세대와 함께 하는 젊은 새마을운동

들어서는 입구부터 떠들썩하다. 최덕환 회장이 이끄는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손형주 협의회장, 이성수 직공장협의회장, 이경순 부녀회장, 이묘신 문고회장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있었던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이 대회에서 최덕환 회장은 '대통령 포장'을 수상했다. 서구 관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명운동과 공동체운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지회장님이 서구 관내에 철쭉 6000그루를 내놓으셨어요. 그 결과 광주광역시 자투리땅이 많이 깨끗해졌죠. 줍깅도 하고 철쭉도 심었더니 쓰레기로 쌓여있던 자투리땅이 그대로 화단이 되었어요. 그 앞에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라고 푯말도 붙여 두었구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소상공인 도시락 봉사도 손꼽을만한 성과였어요. 코로나 상황에 고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었더니 나중에 너무 잘 먹었다며 쪽지도 전해주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구요." 지회장의 포장 수상을 이야기하는데 사업 자랑이 끝없이 이어진다. 과연 광주광역시에서 추천할만한 새마을운동 지회다.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는 협의회, 부녀회, 직장 · 공장, 문고 등 공식 4개 단체와 함께 광주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새마을운동 조직이다. 다른 새마을회와 차별화되는 점은 단연 김영진 교수와 회장 안재웅이 이끄는 대학새마을동아리, 나르샤다. 올해로 결연을 맺은 지 10년이 된 동아리는 처음 회원 24명에서 58명으로 회원이 배가되었다.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새마을운동인데 학생들이 빠져 나가기보다 늘어났다는 것이 너무 대단해 보인다.

"학생들과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줍깅이나 생명운동 캠페인은 물론이구요. 요즘은 페트병을 이용해 반려식물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생명운동 뿐만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김장담기 행사에도 참여한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최덕환 지회장의 설명이다. 날이 갈수록 개인화되어가고 있는 MZ세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1

1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 회장단(사진 뒷줄 왼쪽부터 이성수 직장 · 공장협의회장, 손형주 협의회장,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경순 부녀회장, 최덕환 서구새마을회장, 이묘신 문고회장)

2

미래 새마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세대가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참여시켜야 한다.

3

4

"처음에는 장학금도 주고요. 봉사점수도 주어서 학생들을 유도했죠. 요새는 학생들이 취업하려면 봉사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가 차츰 새마을운동을 하며 느끼는 보람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계속 하게 된다고 해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코로나 전에 제가 외국에 갈 일이 있어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초창기에 저희와 함께 운동했던 주지민 학생을 만났어요. 어찌나 반가워하던지. 정말 뿌듯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제가 다시 서구새마을회 지회장을 맡았죠." 최덕환 지회장의 말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생명, 평화, 공동체, 지구촌 운동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는 생명, 평화, 공동체, 지구촌운동에 모두 열심이지만 그중에서도 생명과 공동체운동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광주천 정화 운동을 위해 부유물 제거와 하천 쓰레기 줄이기를 하는 한편, 유용미생물군(EM)흙공을 투척하고 미생물을 살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는 더 자랑거리가 많다.

"독거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선별하여 집수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주민센터에 맡겼더니 정말 필요한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부터 저희가 직접 나가 집수리를 하게 되었답니다. 내년에는 서구 관내 18개 동의 '어르신 장수사진'도 찍어드릴 계획입니다." 손형주 협의회장의 포부다.

그런가 하면 직공장에서는 분기별 제빵제과를 직접 맡아 시설과 기관 등 소외계층과 나누고 있다. 또한 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연말에는 1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지도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8년 사라진 지도자 장학금을 대체해 회원들을 계속 늘려가기 위한 방침이다.

"직장 · 공장협의회는 인원수는 적지만 영향력만큼은 광주광역시에서 일등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힘을 모아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18세 독립청년들을 지원해볼까 합니다." 이성수 직장 · 공장협의회장의 자랑이다.

미소가 아름다운 이경순 부녀회장이 말을 잇는다. "부녀회에서도 생명과 공동체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닭집이나 기관 등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 복지관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있구요. 구청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양동시장이나 부녀회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운동의 방편으로 '이민여성 멘토 제도'도 운영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소외된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를 위한 이동식 빨래방도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이묘신 문고회장도 마찬가지다. "저희 문고는 알뜰도서 교환전을 하고 있구요.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한글교실'도 열고 있어요. 편지를 읽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오셔서 저에게 줄줄 한글을 읽어줄 때는 그 감동이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바로 이런 기분에 새마을운동을 하는 거죠"

한 목소리로 말하는 새마을운동의 기쁨

기습적으로 각자가 바라는 새마을의 미래를 한 단어로 정의해보시라고 질문을 드렸다.

지회장은 '탄소 제로', 협의회장은 '베푸는 사회', 직장 · 공장협의회장은 '인간성 회복', 부녀회장은 '가족이 정을 나누는 사회', 문고 회장은 '문화'라는 다양한 대답이 돌아왔다. 미래의 새마을에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가치들이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새마을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MZ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져 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래 새마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세대가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교육하고, 홍보하고, 참여시켜야 한다. 나누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은 직접 참여해보지 않고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에서 희망을 본다. 미래 세대와 함께 하려는 노력, 삶을 나누고 봉사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이 지회에서 뚜렷이 보이기 때문이다. MZ세대와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를 뜨겁게 응원한다.

2, 3
투명 페트병으로 반려식물을 만드는 모습.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는 대학새마을동아리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4
쓰다 남은 투명 페트병에 식물을 심어 화분을 만드는 모습

5
광주광역시 서구새마을회와 대학새마을동아리 학생들

5

1

삶의 질은 위로, 환경 부담은 아래로!
새마을정신으로 행복의 균형을 맞춘다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 즉 개인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뜻하는 말이다.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가 생각하는 워라밸의 정의는 조금 다르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의 삶까지 윤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워라밸이다. 더불어 인류와 환경의 균형도 생각한다. 우리 이웃의 행복지수는 높이고, 환경 부담은 낮추는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 사람들을 만나봤다.

write. 이성미　photo. 이민희

바다 건너 섬까지 새마을정신을 전한다

인천은 섬의 도시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고, 이 중 40개 섬에 사람이 산다. 섬은 인천을 더욱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섬사람들에게는 '고립'이라는 현실적인 핸디캡이 존재한다. 오래전 강화대교, 영흥대교가 놓이고, 2013년 석모도, 2014년 교동도가 강화도와 교량으로 연결되었지만, 여전히 배를 이용해야만 입도할 수 있는 섬이 더 많다.

또 섬은 육지보다 고령화가 더욱더 빠르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약 27%. 네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가 그간 인천의 여러 섬을 오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마을운동 정신을 기반으로 섬에 사는 우리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러한 미션을 마음에 품고,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 회원들은 2003년 4월, 처음 섬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김영곤 회장도 20년 전 장봉도를 찾았던 때를 기억한다.

"인천에 살면서 섬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섬이 많지만, 20년 전에는 교통편이 더욱더 열악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섬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거나 머리를 자르는 등 기본적인 일조차 해결하기 어려우셨고요. 이에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가 '우리가 가진 재능을 모아보자' 하고 의기투합했고, 해양경찰의 협조를 받아 행정선을 타고 처음 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손을 잡고 '와줘서 고맙다', '또 와 달라' 하시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여전히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봉사

수혜자가 대부분 육지에 나가기 힘든 어르신들이다 보니, 회원들은 활동에 앞서 항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유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내가 섬을 떠난 후에도 어르신에게 계속 도움이

1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 회장단
(사진 왼쪽부터 엄하일 부회장, 오제철 감사, 김영곤 회장, 김형용 총무, 신삼유 감사)

2

2, 3, 4
지난 10월 16일 직장 · 공장
인천시협의회 회원들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을 찾아 농기계
수리, 이미용, 돋보기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물을 쓸 수 있고,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다. 실제로 절수형 샤워기를 사용할 경우 50%가량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봉사를 위해 회원들은 샤워기 설치가 필요한 가정을 미리 파악하고, 성능을 직접 시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덕분에 회원들은 신속 · 정확하게 150여 가구의 노후 샤워헤드 및 호스를 절수형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은 SK 브로드밴드 우리 동네 B tv 프로그램 〈환경이 답이다〉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만드는 직장공장 인천시협의회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 회원들은 평소 일터에서 한 명의 근로자, 관리자로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근로자, 가장, 그리고 이웃으로서 모든 역할을 성실히 해낸다는 뜻이다. 김영곤 회장은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의 봉사활동이 20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도 회원들의 투철한 봉사 정신과 성실함에 있다고 말한다.

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는 그간 병원과 연계해 섬 주민들에게 양 · 한방 진료를 제공하고, 각 가정을 찾아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시력 검사 후 어르신에게 꼭 맞는 돋보기안경을 제공해왔다. 이 · 미용, 자동차 정비, 농기구 수리, 영정 사진 촬영 등의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20년간 만난 주민 수만 3천 명이 넘는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활동 대부분이 소속 회원 및 회원사가 직접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는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도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니 전문가 부럽지 않게 실력이 쌓인 회원도 많다. 코로나19 이후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부득이 중단된 활동도 있지만, 회원들은 언제든 자신의 재능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는 회원들의 시야가 '환경'까지 넓어졌다. 10월 16일,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를 찾았다. 그리고 돋보기안경 지원, 이 · 미용 봉사, 농기계 수리 등과 함께 각 가정에 절수형 샤워기를 설치했다. 물이 부족한 섬에서 효율적으로

3

4

5
재능기부 봉사자 표창을
전달하는 모습

6
제20회 직장새마을 재능기부
봉사활동 기념사진

5

6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에서는 시 조직과 5개 구 조직이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평소 각자 일터에서 직장 구성원들의 생계를, 또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봉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손꼽아 기다렸다며 맞아주는 사람은 많은데, 주말 동안 모든 일을 해결하려다 보니 봉사하러 와서도 이래저래 시간에 쫓기기도 합니다. 끼니를 챙길 시간조차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도 흔쾌히 일신의 안온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하는 회원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봉사에 임하게 되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동시에 생명운동 실천을 통해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영곤 회장은 2021 새마을운동 유공 정부포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김영곤 회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환경이 모두 행복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며 각오를 다진다.

"우리는 인류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넘어, 지구와 환경이라는 생명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협의회에서는 그간 유용미생물군(EM)을 활용한 수질 개선 및 하천 생태 복원 활동을 비롯한 각종 환경 정화 및 교육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영흥도에서 절수형 샤워기 설치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요. 앞으로도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는 주민 맞춤형, 환경 친화형 활동을 계속 발굴 ·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우리는 남에게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남에게 주는 것으로 삶을 만들어간다"라고 말했다.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의 활동이 더욱더 고맙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들이 세상의 중심에서 일과 삶과 봉사의 선순환을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직장 · 공장인천시협의회가 세상 곳곳 인류와 환경에 행복의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

허리통증, 생활습관으로 예방하자

겨울철, 기온이 영하권을 맴도는 날씨에는 허리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추운 날씨에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고, 신체 활동이 크게 줄어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거기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통증을 느낄 수 있다. 현대인들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80%정도의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 허리통증을 경험한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저리면 허리디스크 초기는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허리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척추질환이 의외로 많다.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척추 질환 감별법과 허리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봤다.

write.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서울대 의대 겸임교수

요통과 하지방사통의 주요 원인, 허리디스크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증상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대표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허리디스크다. 주된 증상이 요통과 방사통인데, 허리를 중심으로 엉덩이까지 광범위하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릎 또는 발가락까지 통증이 이어지기도 한다.

디스크로 인해 신경근이 눌려 나타나는 하지방사통은 통증이 매우 극심하며,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해 통증이 악화된다. 압박된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주로 한쪽)에 감각 이상 및 근력 저하를 동반할 수 있다. 심한 경우 대소변 장애나 하지 마비 등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와 감별해야 될 대표적인 허리통증 질환이 척추협착증이다. 척추협착증은 척추 주변 인대와 뼈가 두꺼워지는 등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척추관은 척수와 하지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다.

따라서 척추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면서 저릿저릿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주로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짧은 거리도 이동하기 힘들어진다. 이때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좁아졌던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져 통증이 감소하기 때문에 걷다가 멈춰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점차 허리가 굽어지는 꼬부랑 허리로 바뀌는 것이다.

허리디스크는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더 빨리 병원을 찾게 된다. 이와 달리 척추협착증은 쉬거나 누워있을 때 증상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일단 척추협착증이 진행되면 자연적인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고령이라면 일시적이 허리 통증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또 흔히 허리를 삔다고 표현하는 급만성 염좌는 요추 부위의 인대 손상과 함께 근육의 비정상적 수축이 허리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담이 결리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비정상적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거나, 외부에서 비교적 가벼운 충격을 받았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급만성 염좌는 허리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심할 경우 허리디스크 초기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하지방사통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단기간에 치유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지 관찰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허리통증으로 척추전방전위증이라는 질환도 있다. 이는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통증뿐 아니라 허벅지 뒤쪽의 슬굴근군(Hamstrings)의 긴장으로 무릎을 편 채로 뒤뚱뒤뚱 걷는 경향의 비정상적 보행이 나타난다.

디스크 허리통증의 비수술적인 치료

디스크에 의한 허리통증은 대부분 좋아진다. 디스크에 의해 신경이 눌리는 것보다 주변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스크가 찢어졌을 때 염증이 가장 심해지면서 허리 통증도 심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다'는 말이 이때 해당된다. 따라서 허리통증의 비수술적 치료접근은 대개 염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경차단술이다. 이는 가느다란 바늘을 피부를 통과해 신경 주변에 위치시키고 스테로이드 주사액을 집어넣는 것이다. 뼈주사, 블록, 신경주사 등의 말로 불리기도 한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치료제이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은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들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는데 신경차단술로 들어가는 스테로이드 용량으로 2회 정도 맞는 것은 대개 문제가 없다. 이러한 시술 뒤엔 허리에 무리가 되는 물건을 들거나 숙여서 일하거나 오래 앉아 있는 나쁜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비수술적 치료에 진통 소염제도 대표적인 통증을 줄이는 약이다. 진통 소염제는 디스크와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준다. 삐져나온 디스크가 흡수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진통 소염제는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해준다. 허리를 당기는 견인치료도 허리통증 치료에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디스크가 체중에 의해 눌리면서 뒤로 밀려나오고 척추 사이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준다. 병원에서는 몸통을 잡아주는 견인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물리치료사가 몸을 고정하고 당겨주는 견인치료를 한다. 철봉에 매달려 하지의 무게가 몸을 당기는 것도 좋은 견인 운동법이다.

이러한 치료법이 효과가 없을 때는 부분마취로 시행하는 허리 시술을 시도하기도 한다. 여기엔 꼬리뼈 쪽으로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 디스크와 신경의 통증 부위(유착부위)를 찾아내 유착을 풀고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다.

비수술적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허리디스크의 증상이다. 통증이 줄면 병이 낫는 중이라는 뜻이다. 다양한 치료법 중 몸에 부담이 덜한 치료부터 받는 것이 좋다. 먹는 약과 물리치료를 먼저 해보고 주사 시술, 척추내시경 수술 등의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의사가 판단했을 때 치료효과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는 치료는 건너뛸 수 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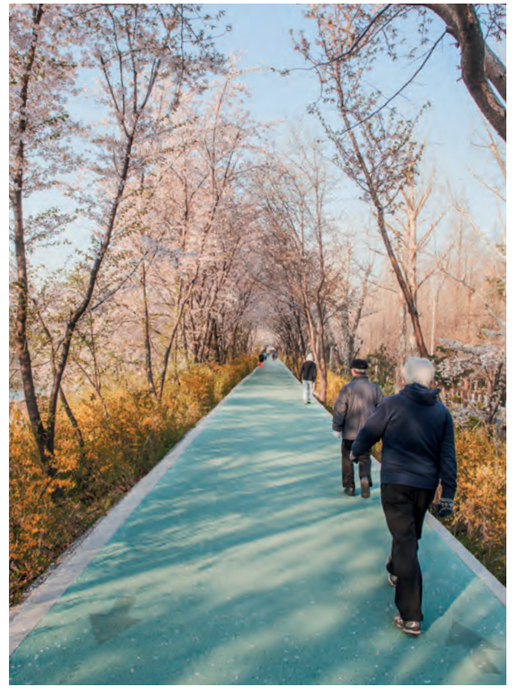
허리디스크 유발하는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 노화

추간판(디스크)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를 겪는다. 추간판의 퇴행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자에 앉을 때에는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워 등을 똑바로 등받이에 기대는 자세가 제일 좋다. 스마트폰, 모니터를 볼 때 의식적으로 목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화면을 눈높이로 맞추고, 일정 시간마다 목을 뒤로 젖히는 등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 된다. 걸을 때는 양발을 어깨너비쯤 벌리고 선 뒤 가슴을 펴고 턱을 당기면 허리가 펴짐을 느낄 수 있다.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가 25이하가 되도록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다.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신체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기 쉽다. 이로 인해 척추는 앞으로 부하가 걸리면서 척추에 부담이 생기기 쉬운 자세로 변화한다. 실제로 2015년 국내에서 진행된 체질량지수에 따른 척추질환 발병률 연구결과, 저체중 그룹은 척추질환 발병률 2.77%, 비만 그룹은 4.09%로 나타나 체중과 척추질환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법으로 멕켄지 운동이 추천된다. 이 운동은 허리를 펴는 신전 운동을 말한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엎드려서 하는 맥켄지 운동과 서서하는 맥켄지 운동이 있다. 엎드려서 하는 맥켄지 운동은 엎드린 다음 팔꿈치를 대고 몸을 세워 앞은 보는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이 자세를 3분 정도 유지한다. 힘을 더 줘 등 허리 등을 더 펴보도록 한다. 이를 10회 정도 반복한다. 서서하는 맥켄지 운동은 먼저 두 발을 벌리고 선 뒤 양쪽 손바닥으로 엉덩이가 아닌 허리를 받친다. 골반을 앞으로 밀면서 허리를 편다. 발뒤꿈치를 살짝 들면 배를 더 앞으로 밀 수 있다. 그런 다음 손으로 허리를 지지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혀 하늘을 본다. 그리고 5초간 유지하고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 이를 10회 반복한다.

최근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노인층에게는 근력운동 보다 걷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통증 경감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순천향대 병원 응급의학과 한상수 교수가 65세 이상 5233명의 허리통증과 걷기 및 근력운동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를 보면 일주일 동안 걷기 운동을 한 날이 많을수록 허리 통증 감소율이 비례해서 증가했다. 특히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허리 통증이 0.57배 경감되는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한 교수는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노인층 환자라면 무리한 근력운동보다는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며 "걷기 운동을 통해 허리 통증을 줄인다면 노인층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 및 기타 요인

1.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경우
2. 등을 굽히고 구부정하게 걷거나 앉는 경우
3.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습관
4.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운전 포함)
5.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경우
6. 노화로 인해 낮아진 골밀도와 디스크 퇴행
7. 교통사고 낙상 등의 외상

가치소비 시대, 환영받는 '에코 프렌들리' 제품들

최근 '에코 프렌들리'라는 타이틀을 내건 제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소비를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을 구매할 때 자신의 신념을 기준으로 삼는 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막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친환경' 그리고 '업사이클링'이 소비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write. 성혜경

Friendly

착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제품

식품 업계의 에코 프렌들리 움직임은 친환경 포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친환경 용기로 대체하는가 하면 제품 제작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원료를 적용하기도 한다. 주류업계 빅2인 H사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쉽게 만들기 위해 페트병 경량화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무라벨 제품군을 늘리고 있다.

S편의점에서는 플라스틱 얼음컵을 종이 얼음컵으로 대체했다. FSC 인증 소재를 사용한 원지에 친환경 코팅 기술을 더한 일회용 컵이다. 친환경 코팅은 합성수지 사용량을 줄이고 탄산칼슘을 배합해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생활용품도 친환경 제품이 대세다. 월평균 1,000개 이상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J사의 '자연유래 안심세제 시리즈'는 화학성 계면활성제 대신 코코넛 성분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 사용 후 98% 분해돼 수질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데다, 리필용 파우치에 담겨 있어 플라스틱 사용량도 줄일 수 있다.

생분해되는 일회용 수세미도 나왔다.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환경호르몬 등 7가지 유해성분을 전혀 넣지 않고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어 퇴비화 조건하에서 100% 생분해된다.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품 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지만 환경에 부담이 적은 일회용 제품도 등장했다. '한번 쓰고 변기에 바로 버리는 변기 클리너'는 펄프 타입 리필을 제품에 장착해 펄프가 물에 닿으면 세제가 풀리면서 바로 청소가 가능해 별도의 세제나 수세미가 필요 없다.

이밖에 대나무로 만든 화장지와 행주, 천연 소재 설거지비누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환경을 깨끗하게 나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의류

많은 패션 브랜드들은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친환경 소재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N사는 기능성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의류 제품을 출시했다. 해양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원사를 사용한 티셔츠는 일반 폴리 대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물 사용량, 탄소 배출량을 줄여준다.

소재의 리사이클도 패션 업계에서 시도하고 있는 에코 프렌들리 방법이다. K사는 리사이클 폴리 원단과 재고 라벨을 활용한 원단으로 티셔츠를 제작했다.

속옷 브랜드도 예외는 아니다. B사는 모달 100%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잠옷을 선보였다. 모달 소재는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고급 원단으로 친환경 소재일 뿐만 아니라 실크처럼 부드러운 감촉을 만들어낸다.

K사는 자체 개발한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인 에코닐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소재의 적용을 통해 에코닐의 경우 1톤이 생산될 때마다 7만 배럴의 원유를 절약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약 6만 5,0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K사의 설명이다.

청바지도 예외는 아니다. S사에서 선보인 청바지는 이스코와 키파스라는 자연 친화 원단을 사용했다. 나아가 데님 재킷, 데님 원피스 등으로 스타일도 확장하고 있다.

T사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원단을 사용해 환경보호는 물론 기능강화까지 되는 속옷을 내놓았다. 원두가 가진 항균 및 냄새 제거 기능으로 세균 번식과 자외선 차단, 흡습 속건 기능이 더해져 위생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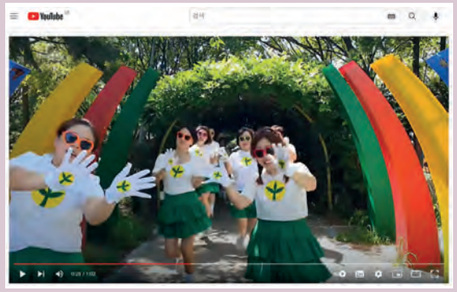
중앙회 소식

① 피지 초청교육 (8.29.~9.6.)

중앙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박 10일 동안 시범마을 주민과 공무원 18명을 대상으로 '2022년 피지 새마을운동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발전 경험을 나눔으로써 현지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초청연수 새마을교육은 마을별 현실문제를 진단하고 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스스로의 사업 추진의지와 능력을 높이는데 주안을 뒀다.

교육생들은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방향, 새마을지도자의 자세와 역할, 마을회칙 및 총회운영 등의 강의와 분임토의, 액션플랜 발표의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견학 · 한국영화 시청 · 민속촌 · 경복궁 나들이 등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② 새마을투댄스 챌린지 (9.19.)



중앙회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 SNS 댄스 챌린지 이벤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챌린지는 새마을운동 뮤직비디오 공개에 발맞추어 중앙회 유튜브 채널 유입 증대를 위한 홍보방안으로 마련됐다. 총 50여 일간 진행된 챌린지에는 총 154건의 댄스챌린지 영상이 게시됐으며, 1등을 차지한 부산 강서구 명지2동부녀회를 비롯한 총 66명(팀)이 수상자로 선정돼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③ 임시 대의원 총회 (9.29.)

중앙회는 지난 9월 29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본회 정관에 의거 2022년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곽대훈 전 20대 국회의원을 제26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곽대훈 회장은 경북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곽 회장은 제11 · 12 · 13대 대구 달서구청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제23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환학 제24대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한편, 염홍철 제25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지난 9월 7일 중앙회 제3강의실에서 시도새마을회장, 시도사무처장 및 중앙회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염 회장은 퇴임사에서 "새마을인문학 정립과 대학새마을동아리의 지속적인 육성"을 당부했다.

④ 전국 새마을부녀회장 연찬회 (9.22.~23.)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회장 조승희)는 지난 9월 22~23일 중앙회 대강당에서 시도부녀회장을 비롯한 시군구부녀회장 2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 전국 새마을부녀회장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전국 새마을부녀회장단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자리로 종합평가 시상, 조승희 중앙부녀회장 개회사, 축사, 한마음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경연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⑤ SGL · 전문가 특별과정 (10.9.~13.)

중앙회가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 32개국 50여명을 대상으로 SGL(Saemaul Undong Golbal Leagu) · 전문가 특별과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SGL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별 새마을운동 성공사례와 지역개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9개국 9명, 아시아 · 중남미 · 아프리카 23개국 40여명은 지구촌새마을운동, 한국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역할,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등의 세미나와 2022지구촌 ·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등 글로벌새마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마을운동 추진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고취했다.

⑥ 탄자니아 총리 내방 (10.25.)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지난 10월 25일 중앙회에 내방한 카심 마잘리와 마잘리와 탄자니아 총리 일행을 영접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과와 탄자니아에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탄자니아 음푸르음왐바오와 은지안네 등 2곳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약 60여 명의 마을주민, 공무원 등을 초청해 '외국인지도자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카심 마잘리와 마잘리와 탄자니아 총리는 "탄자니아 정부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공 노하우와 농촌개발 경험을 통해 다시 한 번 탄자니아에서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새마을운동의 사업 추진 방식은 주민 의식개혁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다 같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라고 설명하며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탄자니아 새마을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양국을 비롯한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시·도 소식

서울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음악회 개최

서울시새마을회(회장 김일근)는 지난 10월 12일 서울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새마을가족과 시민들은 세계 으뜸 도시 서울 홍보와 새마을가족 간 화합 도모,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다짐했다. 김일근 회장은 대회사에서 "희생과 봉사로 하나 되어 준 새마을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부산

2022 부산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부산시새마을회(회장 제종모)는 지난 10월 25일 삼락생태공원에서 '2022 부산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2,100명의 새마을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의식행사, 2부 한마음 체육대회로 진행됐다. 또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모금한 1%나눔운동 후원금 3억 원을 각 구군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제종모 회장은 "공동체 건설은 물론 세계로 뻗어가는 새마을운동에 부산새마을가족이 앞장서자"고 밝혔다.

대구

제11회 독서왕 도전 골든벨 개최

문고대구시지부(회장 이승로)는 지난 10월 22일 대구시청 강당에서 '제11회 독서왕 도전 골든벨대회'를 열었다. 박경수 문고중앙회장이 참석해 격려한 가운데 관내 8개 구군에서 선발된100명의 학생들은 국채보상운동, 새마을운동, 탄소중립을 주제로 기량을 펼쳤다. 이날 대회의 골든벨은 이지환학생(침산초 4) 가족이 울렸다.

인천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에 구슬땀

인천시협의회(회장 한광인) 회원 30여명은 지난 10월 14일 강화군의 고구마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를 펼쳤다. 회원들은 500여 평에 이르는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을 돕고, 수확한 고구마 중 2,000kg을 구매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

새마을동아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광주시새마을회(회장 정경주) 대학생새마을동아리(회장 정진영) 회원 20명은 지난 10월 4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과 줍깅 활동을 실시했다. 회원들은 남부대학교 교정에서 쓰레기를 함께 줍고 투명페트병의 라벨 제거 및 분리수거, 플라스틱 재활용법 홍보 등을 전개하며 대학생들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했다.

대전

우리는 문화가족, 골든벨을 울려라

문고대전시지부(회장 권철원)가 주최하고 서구지부(회장 이제민)가 주관한 가족퀴즈대회 '우리는 문화가족, 골든벨을 울려라'가 지난 10월 22일 도안초등학교 다목적회관에서 열렸다. 초등학생들과 부모 등 50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후의 골든벨은 최현준학생(도안초 6) 가족이 차지했다. 대회는 새마을문고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하고 시민과 학생들의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울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울산시부녀회(회장 김숙자)는 지난 9월 27일 경북 청도군 일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44명의 결혼이주여성과 회원들은 멘토-멘티 결연과 천연염색 체험, 새마을기념관 탐방, 전통시장 장보기를 함께 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숙자 회장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결혼이주여성들의 행복한 한국생활 정착을 응원했다.

세종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세종시새마을회는 지난 9월 8일 관내 어려운 이웃 400가구에 물품을 전달했다. 저소득가구에 대추와 밤, 송편 등의 제수용품과 쌀, 밑반찬 등을 전달한 이번 사업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임한석 회장 직무대행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11월에는 1,150가구에 김치 8,500포기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

3대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밥상

경기도부녀회(회장 서영숙)는 지난 10월 19일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3대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밥상'을 개최했다. 3대 가족 59팀과 새마을지도자 등 4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3대 가족의 요리경연대회, 전통혼례, 퓨전국악 공연, 사랑과 섬김의 세족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서영숙 회장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통과 화합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유쾌한 하루가 됐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원

제15회 강원다문화가족 듀엣가요제 개최

강원도부녀회(회장 전미용)는 지난 10월 25일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제15회 강원다문화가족 듀엣가요제'를 개최했다. 총상금 520만원이 걸린 이번 가요제는 조승희 중앙부녀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다문화가족, 지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대상은 18개 양구군 대표로 참가한 구리타이카네가 차지했다. 전미용 회장은 "다문화가족들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충북

새마을문고가족 한마음등반대회 개최

문고충청북도지부(회장 강정옥)는 지난 10월 22일 속리산 국립공원 세조길에서 회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7회 새마을 문고가족 한마음등반대회'를 실시했다. 회원들은 가을정취 속에서 함께 걸으며 마음을 나누는 한편, 줍깅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앞장섰다. 또한 천년고찰 법주사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협의회(회장 장헌행)는 지난 9월 28일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지도자 표창, 불법폐기물 신고요령, 교통안전교육, 시군별 안전지킴이 우수활동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장헌행 회장은 회원들에게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책임지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

정을 담은 김치 나눔

전라북도부녀회(회장 김미자)는 도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 450가구에 김치를 전달하며 이웃간 정을 나눴다. 지난 9월 1일 14개 시군부녀회 회원 50여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고창군 신림면 다목적체육관에 모여 김치를 담갔다. 김미자 회장은 "우리는 단순히 김치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나눔을 넘어 어울림으로 확산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부녀회 활동을 소개했다.

전남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활동 전개

전라남도협의회(회장 박창덕) 지난 9월 8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구룡포읍 일원에서 복구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이날 참여한 회원 300여명은 저수지 제방 사면이 일부 유실된 구룡포읍의 주민 피해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주택지로 유입된 토사를 정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경북

온몸으로 말해요! 탄소중립 실천!

경상북도부녀회(회장 김옥순)는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회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탄소중립실천 퍼포먼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명운동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새마을 한마음합창 우승팀의 공연과 함께 관내 23개 시군부녀회는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노래와 춤, 풍물,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경연을 펼쳤다.

경남

공동체운동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안화영)는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소노캄 거제에서 '2022 공동체운동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회원 450여명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청취하고 중점운동 실천을 위한 원탁토론, 시군별 사례발표 등을 했다.

제주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 및 나무심기 전개

제주도협의회(회장 안창준)는 지난 10월 24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 및 나무심기'를 전개했다. 참석회원 120명은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성읍민속마을 일원에 3,000그루의 난타나 꽃나무를 심었다.

이북5도

새마을기 교체

이북5도협의회(회장 김중각)는 지난 9월 15일 회원 10명은 이북5도 청사 도로변에 설치되어있는 새마을기 10기를 교체하고 인근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김중각 회장은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담긴 새마을기가 하루빨리 이북5도에서도 펄럭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서울 · 인천 강원 · 제주 이북5도

생명

- 서울 도봉구지회(회장 황이선)는 지난 9월 30일 중랑천과 우이천에서 창3동유치원생들과 함께 유용미생물군(EM) 흙공 4천여 개를 투척했다.
-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부녀회(회장 박영선)와 대림1동부녀회(회장 장희자)는 지난 9월 28일과 30일에 각각 관내 일원에서 가을꽃을 심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양평2동협의회(회장 이재홍)는 지난 10월 7일 관내 자투리공간에 국화, 무화과 등을 심는 청정 골목숲 만들기 사업을 펼쳤다.
- 서울 서초구부녀회(회장 서미나)는 지난 9월 20일 바우뫼문화복지회관 앞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22일에는 방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라벨을 제거, 분리 배출하는 탄소중립 활동도 전개했다.

- 서울 강남구지회(회장 안정일)는 지난 9월 29일 강남구청역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재활용을 알리는 탄소중립캠페인을 실시하고, 10월 7일에는 양재천에서 유용미생물군(EM) 흙공 3000여 개를 투척하고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했다.
- 인천 동구 화수2동부녀회(회장 김인숙)는 지난 10월 4일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학교 주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줍는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 인천 강화군 하점면협의회(회장 함형원)는 지난 9월 24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환경정비활동을 벌였다.
- 제주 제주시 용담2동부녀회(회장 윤미경)는 지난 10월 18일 주민센터와 복개천 주차장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도 전개했다.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부녀회(회장 고태숙)는 10월 18일 관내 카페와 식당을 찾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코로나감염 예방 홍보도 진행했다.

평화

- 서울 관악구지회(회장 이지영)는 지난 9월 29일 개천절을 앞두고 관악우체국 앞에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 직장 · 공장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홍성도)는 지난 10월 17일 청소년을 위한 역사문화탐방 사업으로 대원국제중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사 50여 명과 양구군에 위치한 선사시대박물관, 도솔산 전투 전적비 등을 찾았다. 이날 양구군지회(회장 김영환)는 유적지 소개 및 중식 제공 등을 지원했다.
- 서울 동작구지회(회장 김태완)는 지난 10월 4일 국립 현충원 24번 묘역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제를 개최하고, 현충탑 참배와 묘역 주변 환경정비활동도 실시했다.

공동체

- 문고 서울 성동구지부(회장 김홍주)는 지난 10월 5일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무지개극장에서 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해 관내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들의 우수작품을 시상했다.
- 서울 구로구협의회(회장 정태충)는 지난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내 16개동 전역에서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같은 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관내 4가구의 도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펼쳤다.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조용준)는 지난 10월 4일 관내 하수구, 물웅덩이, 우수관로 등 모기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 문고 서울 관악구지부(회장 김해선)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강감찬축제에서는 알뜰도서교환전과 북라이트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협의회(회장 김형문)는 지난 9월 20일 관내 아파트 상가 일대를 방역 소독했다. 다음날인 21일에는 잠원동부녀회(회장 방순덕)가 방배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 중식 제공 활동을 펼쳤다.
- 서울 강동구새마을회(회장 성홍수)는 지난 10월 4일 새마을회관에서 이웃 돌봄 공동체 꾸러미 나눔 사업을 펼치고, 관내 어려운 이웃 200가구와 사랑의 쉼터에 전달했다. 문고(회장 박경란)는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알뜰도서교환전과 다양한 부대체험행사를 진행했다.
- 인천 중구부녀회(회장 한만분)는 지난 9월 2일 새마을회관에서 2022 사랑나눔 밑반찬 지원사업을 펼쳐 관내 11개동 어르신 250가구에 전달했다.

- 인천 계양구 작전1동협의회(회장 신영호)는 지난 9월 17일 관내 장애인 가정을 찾아 파손이 심한 천장 보수와 도배, 소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했다. 계산3동부녀회(회장 김신임)도 9월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닭볶음탕, 김치 등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15가구에 전달했다.
- 인천 서구새마을회(회장 이부종)는 지난 9월 18일 쌀 200포대, 계란, 닭고기 등 관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후원물품을 석남동 성당에 기탁했다.
- 인천 강화군부녀회(회장 이임순)는 지난 10월 28일 새마을회관에서 고추장을 담가 홀몸 어르신 비롯한 관내 취약계층 400가구에 각 2kg씩 전달했다. 지난 10월 5일에는 길상면부녀회(회장 이미선)가 면사무소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 강원 동해시 송정동부녀회(회장 김순옥)는 지난 9월 27일 관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40가구를 위한 반찬 나눔 사업을 펼쳤다. 망상동부녀회(회장 신순자)도 지난 10월 1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밑반찬 3종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하고, 관내 행복드림냉장고에도 기탁했다.
- 강원 철원군부녀회(회장 이애숙)는 지난 9월 19일 새마을회관에서 얼갈이 열무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 어르신 150여 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의 김치은행 사업을 실시했다.
-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협의회(회장 이영구)는 지난 9월 21일 도촌리와 청4리 농가를 찾아 벼 베기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 강원 인제군 북면부녀회(회장 정옥수)는 지난 9월 17일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56가구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상남면협의회(회장 용창중)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어려운 이웃 가구의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 강원 고성군 하일면협의회(회장 이준열)와 부녀회(회장 제호정)는 지난 9월 13일 면사무소를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260kg을 기탁했다. 상리면부녀회(회장 이미숙)는 지난 10월 19일 관내 일원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마을별 경로당에 전달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펼쳤다.
- 제주 제주시 외도동부녀회(회장 강길선)는 지난 10월 16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주거지역과 관내 체육시설 10개소에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부산 · 대구
세종 · 경기

생명

-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협의회(회장 배주석)와 부녀회(회장 김선임)는 지난 10월 7일 관내 일원에서 탄소중립실천 '줍깅데이' 활동을 실시했다.
- 부산 동래구새마을회(회장 노진호)는 지난 9월 27일 안락교차로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충렬사 일원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 부산 해운대구새마을회(회장 홍철우)는 지난 9월 26일 관내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실천 캠페인을 추진했다.

- 부산 금정구 장전1동부녀회(회장 오현숙)와 구서2동부녀회(회장 공혜린)는 지난 10월 13일 각각 관내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 부산 강서구 강동동협의회(회장 조현수)는 지난 10월 12일 관내 농협에서 자원 재활용을 위한 농약 공병 모으기 활동을 전개했다.
- 부산 수영구 남천1동협의회(회장 전정근)는 지난 10월 6일 관내 일원에서 가을맞이 초화식재사업과 쾌적한 마을환경을 위한 '줍깅' 활동을 실시했다.
- 부산 기장군 기장읍부녀회(회장 김해순)는 지난 10월 1일 관내 재래시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탄소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 대구 동구 안심1동부녀회(회장 박수희)는 지난 10월 16일 팔공산 수태골 입구에서 행락질서캠페인과 줍깅을 실시했다.
- 대구 북구 고성동협의회(회장 고철환)와 부녀회(회장 오수미)는 지난 9월 1일 관내 화단에 메리골드와 백일홍 200개를 심는 환경정비와 대청소를 실시했다.
- 세종 부강면협의회(회장 원광희 · 송미자)는 지난 10월 22일 관내 일원에서 폐비닐과 농약병을 수거하여 분류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 경기 수원시새마을회(회장 홍순주)는 지난 9월 28일 마중공원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나무심기 운동' 펼치고, 영산홍 1500여 그루를 심고 묘목을 배부했다.
- 직장 · 공장 경기 양주시협의회(회장 오수영)는 지난달 10월 22일 옥정중앙공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버스킹 라이브 공연을 열고,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텀블러 등을 전달했다.
- 경기 안산시새마을회(회장 임충열)는 지난 9월 24일 관내 일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실시했다.
- 경기 남양주시새마을회(회장 이덕우)는 지난 10월 14일 시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자원 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리사이클 플리마켓'을 개최했다.
- 경기 평택시 청북읍부녀회(회장 임연숙)와 팽성읍부녀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0월 31일 각각 관내 일원에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경진대회를 열었다.

평화

- 부산 북구 덕천3동협의회(회장 이용현)와 부녀회(회장 최숙희)는 지난 10월 1일과 3일 그리고 9일 세 차례에 걸쳐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을 추진했다.
- 부산 사상구부녀회(회장 조혜옥)는 지난 9월 30일 관내 일원에서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다문화 역사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했다.
- 부산 기장군새마을회(회장 박용주)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관내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정환수)는 지난 10월 18일 새마을회관 옥상에서 새마을기와 국기를 교체 · 게양했다.
- 경기 수원시부녀회(회장 김옥자)는 지난 10월 6일 관내 일원에서 결혼이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유정인 김치명인에게 배우는 '우리김치 만들기' 강좌를 실시했다.

공동체

-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부녀회(회장 오선주)는 지난 10월 19일 관내 복지 취약계층 결연 10가구를 방문하여 밑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 부산 남구부녀회(회장 최영실)는 지난 9월 1일 추석을 맞아 남구청 대강당에서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추석명절맞이 선물 꾸러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 부산 해운대구 우2동부녀회(회장 윤연선)는 지난 9월 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계절김치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100가구에 전달했다.
- 부산 금정구 부곡2동협의회(회장 김병국)는 지난 10월 2일 관내 어려운 이웃 1가구를 찾아 천정 수리, 벽지 도배, 장판 교체 등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전개했다.
- 부산 강서구협의회(회장 강명수)와 녹산동협의회(회장 노경조)는 지난 10월 11일 관내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하여 집수리 사업을 진행했다.
- 부산 수영구협의회(회장 임병석)는 지난 10월 9일 관내 취약계층 2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벌였다.
- 부산 사상구부녀회(회장 조혜옥)는 지난 10월 7일 관내 일원에서 24명의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모시고 힐링의 시간을 갖는 '고부나들이' 사업을 펼쳤다.
- 부산 기장군새마을회(회장 박용주)는 지난 10월 11일 관내 일원에서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500kg을 전달했다.
- 문고 대구 중구지부(회장 김은진)는 지난 10월 17일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독서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도서를 기증했다.
- 문고 대구 서구지부(회장 김성희)는 지난 10월 8일 이현공원에서 알뜰도서 교환전과 독서 감상화 대회를 개최했다.

- 대구 동구 신암3동부녀회(회장 최영분)는 10월 15일 율하체육공원에서 열린 2022 동구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해 시민들을 위한 음식 나눔을 펼쳤다.
- 대구 수성구새마을회(회장 양균열)는 지난 9월 17일 관내 미혼모 시설인 가톨릭푸름터를 찾아 어린이 친환경 놀이매트(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 대구 달성군 옥포읍협의회(회장 나대명)와 부녀회(회장 이무선)는 지난 9월 30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 200kg을 기탁했다.
- 세종 전의면협의회(회장 김장수)와 부녀회(회장 김홍순)는 지난 10월 22일 나눔 농장에서 '2022 사랑의 김장나누기' 지원금 마련을 위한 고구마 수확을 진행했다.
- 경기 고양시 고양동부녀회(회장 송연희)는 지난 10월 11일 관내 일원에서 이웃들에게 김치와 밑반찬을 나누는 '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 경기 용인시 역북동부녀회(회장 안순월)는 지난 9월 27일 관내 홀몸 어르신 24가구를 찾아 반찬 나눔을 펼치고, 안부도 살폈다.
- 경기 성남시새마을회(회장 임원묵)는 지난 9월 15일 야탑천에서 폭우와 태풍으로 파손된 수로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 경기 부천시 괴안동부녀회(회장 이명숙)는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관내 취약계층 15가구를 방문해 '사랑가득 이불세탁' 사업을 추진했다.
- 경기 안산시새마을회(회장 임충열)는 지난 10월 18일 행복나눔터에서 '우리동네 행복밥상'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차상위 계층 청소년 200가구에 사랑의 수제돈가스 나눔을 진행했다.

- 경기 남양주시부녀회(회장 김정옥)는 지난 9월 5일 마을공동회관 대강당에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송편 만들기' 사업을 펼쳤다.
- 경기 이천시 대월면협의회(회장 곽용진)와 부녀회(회장 홍현숙)는 지난 11월 2일과 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추 2000포기로 김장을 담가 한우사골곰탕 360개 꾸러미와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 가정에 전달했다.

지구촌

- 경기 안양시새마을회(회장 김의중)는 지난 9월 16일 관내 일원에서 라오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 · 전북
전남 · 경남

생명

- 광주 북구 두암3동부녀회(회장 최순희)는 지난 10월 20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밤실마을 위생취약지역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 광주 광산구협의회와 부녀회는 지난 9월 8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무료로 생수를 나누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 전북 부안군 진서면부녀회(회장 장필순)는 지난 9월 20일 곰소젓갈발효축제 부지 일원에 방치된 쓰레기 및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 전남 무안군 청계면협의회(회장 배석만)는 지난 9월 19일 목포대학교 정문에서부터 남성3리 상석촌 마을까지 이어지는 대로변에 버려진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과 담배꽁초, 재활용품,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을 수거했다.
- 전남 영암군새마을회(회장 박찬)는 지난 9월 27일 영암금호방조제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 1.2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 경남 밀양시 단장면협의회(회장 이수근)는 지난 10월 12일 각 마을에 설치된 농약빈병 수거함을 정리하고 농가에 보관 중인 농약빈병을 집중 수거했다.
- 경남 산청군 신등면협의회(회장 황학수)는 지난 9월 6일 관내 지역 공원 2곳과 도로변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 경남 남해군 미조면협의회(회장 구행남)와 부녀회(회장 김미순)는 지난 10월 17일 송정솔바람해변 주차장에서 2022년 하반기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마을에 보관 중인 파지, 빈 병 등 총 9.3여 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했다.
- 경남 하동군새마을회(회장 임태경)는 지난 9월 29일 경상남도새마을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교면사무소에서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했다.

평화

- 전북 무주군지회(회장 문기득)는 지난 9월 22일 무주수련원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남녀지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워크숍을 가졌다.
- 전남 순천시새마을회(회장 김동철)는 지난 10월 19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남녀새마을지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순천시새마을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 경남 하동군새마을회(회장 임태경)는 협의회(회장 한기식), 부녀회(회장 이미연), 문고(회장 강남석) 남녀지도자들과 지난 9월 30일 금남면 새마을휴경지에 심어진 고구마를 수확했다.

공동체

- 광주 동구 산수1동부녀회(회장 김태임)는 지난 9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관내 어려운 이웃 100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3종을 만들어 전달했다. 지산2동부녀회(회장 김영초)는 지난 9월 6일 마을사랑채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다복마을 골목장인과 사랑의 송편나누기 사업을 전개했다.

- 광주 서구새마을회(회장 최덕환)는 지난 9월 17일 서구문화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극문양 4괘(건·곤·감·리)를 직접 그려 보는 체험을 가졌다. 문고 서구지부(회장 이묘신)는 서구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실시한 도서 재활용과 범시민 독서 생활화를 위해 '읽고 난 도서 무료교환 장터'를 운영했다.
- 전북 전주시 호성동부녀회(회장 이현옥)는 지난 10월 17일 호성주공아파트 1단지 내에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이동빨래차량 협조를 받아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25세대를 대상으로 이불 빨래 봉사를 펼쳤다.
- 전북 익산시 영등1동부녀회(회장 이인옥)는 지난 10월 18일 중증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 고위험 1인 가구 28명에게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했다.
- 전북 정읍시새마을회(회장 김학구)와 문고(회장 손경호)는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개최된 제15회 정읍 평생학습 축제에서 '2022 도서 교환시장'을 운영했다.

- 전북 임실군 관촌면부녀회(회장 김막래)는 지난 9월 28일 관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새마을 부녀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추장 200kg를 직접 담가 저소득 가정 100가구에 전달하는 사랑愛 고추장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전북 고창군지회(회장 오균호)는 지난 10월 10일 직접 농사지은 고춧가루와 농산물로 고추장 800여 통을 담가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 문고 전남 여수시지부(회장 이동근)는 지난 10월 22일 거북선공원에서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등 여수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문수동협의회(회장 김장기)와 부녀회(회장 문애리)는 지난 9월 19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제56회 여수거북선축제' 음식부스 수익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 전남 목포시 유달동협의회(회장 김요중)는 지난 10월 17일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전개했다.
- 전남 무안군 일로읍부녀회(회장 이복례)는 지난 9월 28일 일로읍 복지기동대(대장 진중천)와 연계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쓰레기 수거와 집 안팎 청소를 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전남 담양군 봉산면부녀회(회장 양두례)는 지난 9월 27일 배추열무김치, 돼지고기장조림, 김자반볶음, 짠지무침 4종을 만들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봉산댁 이음반찬 나눔활동을 펼쳤다.
- 전남 완도군 청산면부녀회(회장 안문숙)는 지난 10월 21일 관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말벗해드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 전남 신안군새마을회(회장 오인석)는 지난 9월 18일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압해읍과 안좌면의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 경남 창원시새마을회(회장 장기영)는 협의회(회장 홍판출), 부녀회(회장 제쌍미)와 함께 지난 10월 6일 마산합포구 교방동 일원에서 '희망나눔, 마을벽화그리기' 사업을 펼쳤다. 월영동부녀회(회장 장계선)는 지난 10월 18일 어르신 80여 명을 모시고 연주 공연을 하고, 음식을 대접했다.
- 경남 산청군새마을회(회장 이천세)는 지난 9월 16일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거제시 일원으로 효도관광을 실시했다.
- 경남 함양군지회(회장 조명환)는 지난 9월 5일 고운체육관 입구에서 쌀 10kg, 휴지,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을 준비해 관내 취약계층 130세대에 전달했다.
- 경남 거창군 주상면부녀회(회장 이복남)는 지난 9월 15일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거창사랑카드 1매(10만원)를 주상면 공유냉장고에 기부했다.
- 경남 남해군협의회(회장 백종창)는 지난 10월 6일 이동면 충혼탑 주차장에서 읍면 협의회장 10여 명과 함께 '2022 아름다운 동행 홀몸노인 사랑잇기 발대식'을 가졌다.

삼동면협의회(회장 한수찬)와 부녀회(회장 신우엽)는 지난 10월 18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독일맥주축제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대전 · 울산 충북 · 충남 경북

생명

- 울산 북구 효문동부녀회(회장 이선희)는 지난 10월 11일 원연암 도시생태휴식공간 일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천 정화용 유용미생물군(EM) 흙공 던지기 사업을 실시해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앞장섰다.
- 춘해보건대학교 새마을봉사동아리(회장 김민정) 학생들은 지난 9월 28일 교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상식 퀴즈를 통해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방법을 다짐받는 탄소중립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 충북 보은군 삼승면협의회(회장 유병구)와 부녀회(회장 김미경)는 지난 9월 28일 관내 일원에서 자원 재활용을 위해 농약병 수거 활동을 펼쳤다.
- 충남 서천군새마을회(회장 권순우)는 지난 10월 10일 관내 일원에서 13개 읍면 수거함에서 수거한 1000여 개의 아이스팩을 세척 · 소독해 서천특화시장상인회에 전달했다.

마산면협의회(회장 박원희)는 지난 10월 11일 관내 영농폐기물 처리장에서 각 마을에서 배출한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약 10톤을 분리했다. 시초면협의회(회장 서석원)는 지난 9월 30일 면민의집 일원에서 마을별로 수거한 농약병, 비닐 등 영농폐기물 약 2톤을 분리했다.

- 충남 홍성군 은하면협의회(회장 김정선)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기간을 운영해 관내 영농폐기물과 고철, 캔 등 숨은 자원을 수거할 예정이다.
- 충남 예산군 삽교읍협의회(회장 이광세)와 부녀회(회장 박미자)는 지난 9월 30일 삽교읍 체육공원 광장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을 전개했다. 봉산면협의회(회장 김일환)와 부녀회(회장 송순옥)는 지난 9월 29일 봉산면농촌복합체육관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을 실시하고 수익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했다.
- 경북 청도군새마을회(회장 정해용), 협의회(회장 이종호), 부녀회(회장 조순계)는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농촌지역 폐가전제품 재활용 사각지대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참여해 청도군 내 9개 읍면, 212개 마을에서 폐가전제품 약 2500대를 수거했다.
- 경북 성주군 벽진면협의회(회장 김현수), 부녀회(회장 백명순)와 용암면협의회(회장 신순리)는 지난 9월 27일 참외광장에서 개최된 2022년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에 참가해 자원순환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 경북 칠곡군새마을회(회장 윤기한)는 지난 9월 1일 왜관시장에서 새마을 환경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위한 장바구니 나눔과 캠페인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 경북 예천군 지보면협의회(회장 정영복)와 부녀회(회장 강순자)는 지난 9월 16일 관내 빈농약병 집하장에 꽃씨 파종작업을 실시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앞장섰다.
- 작장 · 공장 경북 봉화군협의회(회장 김만수)는 지난 10월 8일 내성천 일원에서 하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새마을 쓰담쓰담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평화

- 문고 대전 서구 갈마2동분회(회장 송창화) 회원 10명은 지난 10월 19일 충북 보은의 대추농가를 찾아 수확을 도우며 농번기 부족한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 충북 단양군새마을회(회장 오수원)는 지난 10월 10일 단양구경시장에서 나라사랑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 경북 고령군새마을회(회장 박중규), 협의회(회장 곽재윤), 부녀회(회장 김영자)는 지난 10월 6일 대구 남구 새마을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농봉사활동, 지역 투어 추진을 통한 관광산업 홍보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공동체

- 대전 동구 용운동부녀회(회장 육경자)는 지난 10월 1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이불 빨래 사업을 전개해 관내 홀몸 어르신 20여 가정에서 수거한 세탁물을 세탁한 후 각 세대에 전달했다.
- 대전 중구 문화1동부녀회(회장 최은희)는 지난 9월 29일 관내 일원에서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저소득가정 50세대에 밑반찬 나눔을 실천했다.

- 충남 청양군부녀회(회장 강기자)는 지난 9월 13일 폭우피해를 입은 관내 이웃가정을 위해 100만원을 충남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 충남 태안군 소원면협의회(회장 이성철)은 지난 10월 3일 만리포중학교에서 관내 어르신 1000여 명을 모시고 제6회 소원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 충남 예산군새마을회(회장 성낙구)는 지난 10월 5일 수덕초등학교에서 '5회 새마을어린이 독서골든벨' 사업을 개최했다.
- 울산 동구 남목1동협의회(회장 윤재필)는 지난 10월 13일 관내 어려운 이웃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전개했다.
- 울산 중구새마을회(회장 주형국)는 지난 10월 17일 울산시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월 생활물품을 지원하기로 상호협의했다.

- 문고 울산 울주군지부(회장 문군자)는 지난 9월 21일 범서읍 울주선바위도서관 1층 누리마당에서 박경수 새마을문고중앙회장, 이순걸 울주군수, 송병열 울주군새마을회장, 김옥희 부녀회장을 비롯한 남녀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고운동 창시자인 '엄대섭 선생 추모제'를 개최했다.
- 경북 포항시협의회(회장 심정섭)는 지난 10월 15일 대송면 복지회관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이웃 가정을 위해 도시락 600인분을 만들어 전달했다.
- 문고 경북 경산시지부(회장 최상숙)는 지난 10월 27~31일까지 옥산동 중산근린공원에서 헌책을 새책으로 교환해드리는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을 운영했다.

- 문고 경북 영천시지부(회장 도기식)는 지난 10월 2일 관내 새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헌책을 1일 2권 이내 새책으로 교환해주는 알뜰무료 도서교환시장 사업을 전개해 시민 독서 생활화 운동에 앞장섰다. 남부동협의회(회장 장병호)는 지난 10월 7일 관내 소외이웃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싱크대 및 보일러 교체, 벽지 및 천장 도배 등을 실시해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 경북 고령군새마을회(회장 박중규), 협의회(회장 곽재윤), 부녀회(회장 김영자)는 지난 9월 8일 경주시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해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위험 구조물을 점검, 수리하는 등 피해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힘썼다.
- 경북 성주군 월항면부녀회(회장 이두례)는 지난 10월 17일 용각3리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 별고을 통돌이 이동 빨래방' 사업을 실시해 관내 취약계층의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이 끝난 이불을 다시 전달했다.
- 경북 봉화군 석포면부녀회(회장 김명순)는 지난 10월 5일 면사무소에서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을 전개해 관내 7개 마을 어려운 이웃 500여 가정에 반찬과 식재료 나눔을 실시했다.
- 경북 울진군 북면협의회(회장 엄재완)와 부녀회(회장 김미화)는 지난 10월 10일 관내 어려운 이웃 가정을 찾아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전개했다.

Reader's Message

새마을 통통통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9+10월호 독자 의견 당첨자

황경연
'세계로 확산되는 지역개발모델, 지구촌새마을운동'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기여한 새마을정신이 개발도상국으로 잘 전수되어 지구촌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김동영
새벽종 잡지를 보며 많은 칼럼과 사진, 정보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지난 일이 아니라 확장되고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다양한 문화와 기술을 접하게 하는 것이 참 좋다고 느껴지네요.

김선미
어렸을 때 새마을 노래를 들으며 일어나곤 했던 제가 이제는 새마을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봉사하며 뿌듯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봉사하며 더 나은, 함께 성장하는 새마을운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임성희
청년과 함께 과거를 잇고 미래를 여는 새마을운동 기사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부모님 세대들께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새마을운동,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제2의 도약을 이끌어주실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2023년 〈새벽종〉을 위한 설문조사
2023년 〈새벽종〉에 더욱 새롭고
다양한 소식을 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12월호에 대한 독자의견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증정)

NH 농협
함께하는 100년농협

국민의 먹거리를 **키워낸다는 부심**
도시와 경제를 **살린다는 부심**
이 멋진 곳을 **지켜간다는 부심**

눈부신 농부심

대한민국에
농부라는 자**부심**이 커지도록!